

USA Non Tariff Barriers Issue

#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 미국 식품의약국, 배양육 안전 규제 방안 논의 개시



### 미국 식품의약국, 배양육 정의 및 관리감독 논의 위한 공청회 개최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배양육(in vitro meat 혹은 cultured meat)에 대한 정의, 규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식품의약국은 본 공청회를 통해 식품 관련 권한 및 배양육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고히 하며, 해당 식품에 대한 식품의약국의 규제권한을 강조함.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과학적 전문성과 육가공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오랜 성공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해 집단 간 ‘육류’ 정의 및 인정 여부 대립

배양육이란 채취한 동물의 줄기 세포를 비 전통적 식품 기술들로 증식시켜 만든 고기로 정의되어 있으나, “육류, 고기”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업계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음. 공청회에 참석한 배양육 업체 멤피스 미츠(Memphis Meats)는 “배양육과 기존 육류제품은 과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육류 관련 정의 규정을 고려했을 때 배양육 완제품 역시 고기(meat, beet, poultry)와 다르지 않다.”며 배양육을 “육류”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하지만 미국축산협회(NCBA: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는 “배양육은 실제 육류로 보기 어렵다. 육류생산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배양육 제품을 육류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며 농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육류 인정 불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FDA vs USDA, 배양육 규제 관할권 갈등 예상

대다수의 식품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미국 식품의약국은 전문성을 근거로 배양육 규제 관할권을 주장함. 그러나 대다수의 육류 및 유제품을 규제하는 미 농무부의 소니 퍼듀(Sony Perdue) 장관은 “미 식품의약국과 미 농무부의 관할권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육류는 수 년 동안 미 농무부가 관리 감독해 왔으며, ‘육류’ 라벨이 붙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배양육에 대한 규제권한이 농무부에 있음을 강조함. 두 기관 모두 배양육 제품 이슈 및 규제 방안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배양육 업계, 전통적인 소고기 업계, 식품 안전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요 관계자 중 하나인 농무부는 불참하는 등 배양육 규제 관할권에 대한 두 기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시장에서도 배양육 개발 및 수입에 대해 발 빠른 대처 필요

이번에 개최된 공청회는 미국 농무부가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정의나 규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배양육에 대한 두 기관의 관할권 갈등은 미국 식품 및 육류에 대한 실제적 권한이 있는 FDA와 USDA가 “배양육”을 육류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미국의 육류 생산 및 소비 시장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국내 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들도 배양육 개발, 수입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등 향후 배양육 산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 미국 “배양육” 논의 관련 기사

<https://wtop.com/food-restaurant/2018/07/fda-hosts-public-meeting-to-make-case-for-oversight-on-lab-grown-meat/>

<https://www.agri-pulse.com/articles/10927-memphis-meats-calls-on-usda-to-deny-meat-definition-petition>

<https://www.agri-pulse.com/articles/11222-fda-says-again-it-has-expertise-to-regulate-cell-based-meat>

## 출처

FDA hosts public meeting to make case for oversight on lab-grown meat, Washington's Top News, 2018.07.11